

# The Media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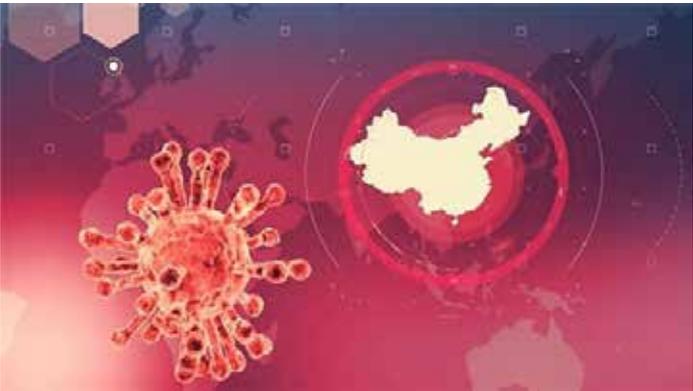
교민과 함께 만드는 신문

Email : themediak@gmail.com Tel : 021-3002-9090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빠뿌아에도 차례상과 떡국...한국인 58명 현지 근무

## 우한 폐렴 확산... 印尼, 국내 항공편 우한 노선 전면 운휴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24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를 중심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 항공사의 우한 노선을 일시적으로 전면 운휴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당국이 23일부터 우한 시 텐허(天河) 국제공항을 폐쇄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인도네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LCC) 라이온에어(Lion Air)는 24일 발리-우한 노선을 당분간 운휴한다고 발표했다.

24일과 26일에만 발리에 있는 중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발리발 우한행을 운항, 동 노선의 티켓 소지자에 대해서는 대체편으로 대응했다.

25일에 중국 창사(長沙)-북부 쉐라웨이 마나도 항공편으로 입국한 승객 중 7명에 대

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혹이 있었지만, 검사 결과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니 교통부 항공국은 지난 20일 국내 항공사들에 회람을

내고 감염자가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건강 상태에 관한 질의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기내에서 감염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공항의 항공 관제사에게 연락을 의무화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보건부 질병통제예방국의 아흐맛 비서관은 24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북부 자카르타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환자는 음성이라고 발표했다. 발리에서 검사를 받은 3명의 환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제4터미널, 건설 공사비는 14조 루피아

인도네시아 국영 공항 운영사 앙가사 뿌라2(PT Angkasa Pura2, 이하 AP2)는 수도 자카르타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Soekarno Hatta International Airport) 제4터미널 건설에 대한 공사비가 12조~14조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지 각지 언론이 24일 전했다.

AP2의 무하마드 사장에 따르면, 제4터미널은 내년 초 착공해 2023년 말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

102헥타르의 토지 취득은 이미 완료했으며 연내에 최종 디자인을 결정한다.

제4터미널 여객 취급 능력은



연간 4,000만~4,500만 명으로 국내 최대가 된다. 개장 후 제1,2터미널과 제3터미널을 합치면 이 공항의 여객 처리 능력은 연간 약 1억 1,000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무하마드 사장에 따르면,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개장 공사의 진척율은 각각 35%, 40%다. 제2터미널은 12월, 제1터미널은 내년 3월 완공 예정으로 알려졌다.

## 조꼬위 “한국기술 이전 잠수함, 방산 독립 시발점 되길” 대우조선해양 기술이전으로 조립한 ‘알루고로-405’ 시찰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연일 방위산업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꼬위 대통령은 27일 자바섬 수라바야의 국영 조선소인 PAL을 방문,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이전으로 현지에서 조립한 잠수함 ‘알루고로-405’를 시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에서 2011년 1천400t급 잠수함 3척(1조3천억원)을 수주해 1번 함과 2번 함은 한국에서

건조해 인도했고, 3번 함인 알루고로는 한국에서 만든 본체를 PAL로 가져와 기술지원을 통해 조립하도록 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알루고로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기술이전을 받은 것은 좋은 협업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궁은 알루고로 잠수함 건조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가 됐다고 조꼬위 대통령이 이 잠수함을 방산 독

립의 시발점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개혁하고,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KF-X/IF-X)를 공동 개발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며 2018년과 2019년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조꼬위 대통령은 리더십 회의 후 언론 인터뷰에서 “수



▲ 조꼬위, 대우조선해양 기술이전으로 만든 잠수함 시찰

라바야에서 국방부 장관과 함께 어떤 분야의 어떤 장비를 사들일지 논의할 것”이라며 “국방장관이 프랑스와 한국, 동유럽 국가의 무기체계 구매에 대해 평가했다.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KOREAN PROMO 2020

MODERN GOLF & COUNTRY CLUB

## Enjoy Golf with Great Jacuzzi & Massage

<b>Monday</b>	IDR <b>545.000*</b>	Include Cart
<small>* Valid until 30 April 2020.</small>		
<b>Tuesday - Friday</b>	IDR <b>575.000</b>	Include Cart
<b>Saturday PM</b>	IDR <b>1.265.000</b>	Include Cart
<b>Sunday AM</b>	IDR <b>1.550.000</b>	Include Cart
<b>Sunday PM</b>	IDR <b>1.265.000</b>	Include Cart

\* Valid for Korean only.  
\* Player must show passport or KIMS/KITAS upon registration.  
\* Terms & conditions applied

marketing@moderngolf.co.id  
www.moderngolf.co.id

Modern Golf & Country Club  
moderngolf\_countryclub

For further information & registration : **+62811 925 2277**

## 인니, 국부펀드에 200억 달러 조달 계획 ...신수도 개발 자금으로 활용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16일 새로 설립 예정인 국부펀드에 적어도 20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 펀드에 외국 투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루훗 해양투자조정장관은 8일 “아랍 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왕세

자는 인도네시아 국부펀드에 관한 법을 수립한다면, 펀드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과 미국의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도 펀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12일 아부다비 에미리트를 방문했을 때, 무하마드 왕세자와 이 펀드에 대해 협의를

나눴다. 루훗 장관은 “국부펀드의 자금을 동부 깔리만판주 신수도 개발에 충당할 방안에도 대해서도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아랍에미리트의 모하메드 왕세자,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 마사요시 회장,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 3명을 수도이전 자문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 인도네시아 보건부, 우한 폐렴 확산에 주의 당부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최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를 중심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확산됨에 따라 폐렴 발생이 확인된 국가나 지역에 대한 여행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21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보건부는 지난 3일부터 중국 등에 대한 도항(渡航)에 주의를 당부함과 동시에 여행객과 접촉하는 공항 직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

보건부 질병통제예방국 관계자는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

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건강 상태에 관한 질의표 작성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Soekarno Hatta International Airport)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135곳의 모든 입국장에는 체온감지기 배치가 완료되었다.

한편 우한 폐렴은 날로 확산하며 중국에서만 감염자가 440여명에 이르고 9명이 숨졌다. 이어 주변국인 대만, 한국, 일본, 태국 등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인니 정부, 수도 이전 위한 해외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동부 깔리만판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도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외 운영위원회 위원 3명을 위촉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실권자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흐



안 아부다비 왕세제, 소프트뱅크 그룹을 이끄는 재일교포 3세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 3명이 수도 이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흐인 아부다비 왕세제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해 자바섬에 인구와 경제력 편중 현상이 심각하고, 특히 자카르타가 수해 등 재난에 취약하다며 수도를 보르네오섬 동부 깔리만판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새 수도 건설을 시작해 2024년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한다. 건설비용은 대략 330억 달러(40조원)로 추산되고 있다.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 명함 : 컴폼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도서출판/인쇄기업 광개토는 고객의 요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2020년부터 **디지털프린트** 사업을 시작합니다. 소량 인쇄는 물론 완벽한 고퀄리티를 제공하고자 **디지털프린트**기를 도입해 고객만족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광개토는 지속적인 고객요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고객과 함께 고민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제작 문의** : 021 3002 9087 /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 khong3000@gmail.com

## 인도네시아 발리섬 ‘꾸따~공항’ 지하 경전철 건설... 한국 참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철도시설공단, 인니업체 MOU 체결



▲ 발리섬 ‘꾸따~공항’ 지하 경전철 예상 노선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경전철(LRT) 건설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 22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철도시설공단은 전날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인 ‘닌디아 까르야’ (Nindya Karya)와 경전철 건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

혔다. 인도네시아는 발리섬 유명 관광지인 꾸따에서 응우라라이공항(벤빠사르공항)까지 4.75km 구간에 5조 루피아(4천280억원)를 투입해 전 구간 지하에 경전철을 건설하고자 한다. 닐디아 까르야 사장 카림은 “인도네시아 공항 공사가 지

하에 여객 셔틀용 LRT를 건설해 교통혼잡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고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올해 6월께 공사를 시작해 2022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사업의 당사자로 동참하고, 인도네시아 공항공사도 곧 MOU에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철도시설공단은 인도네시아 북부 외곽을 달리는 경전철 1단계 사업을 수행했다. 5.8km 구간, 6개 역을 잇는 토목공사는 현지 업체들이 했지만, 철도공단이 한국 중소기업과 손잡고 우리 기술로 전력 및 신호체계 등 경전철 시스템을 구축했다.

철도공단은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구간이 지난달 상업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 2단계(7.5km) 공사의 사업관리를 총괄하는 사업관리용역을 수주했다.

이번 발리섬 경전철 건설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석 달 동안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진다.

[연합뉴스]

## 한국남부발전, 중자바주 수력 발전소 계획 출자 시동



한국전력공사(KEPCO)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KOSPO)이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에서 계획되고 있는 수력 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한 출자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현되면 KOSPO 최초의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된다고 지난 20일자 현지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KOSPO는 지난 17일 중부 자바주 반자르누가라(Banjarnegara)군의 마웅 수력 발전소(Maung hydropower plant) 건설에 대해 국영 건설 닐디아 까르야(Nindya Karya)와 국영 전력 PLN(PT PLN)의 자회사 인도네시아

파워(Indonesia Power)와 합작 회사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향후 1개월 이내에 설립한다. 이 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23만kW(킬로와트), 총 공사비는 6억 5,000만 달러로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KOSPO 해외사업본부 측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모든 조건이 맞으면 사업에 출자한다”며 “인도네시아 파워와 공동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바흐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청장은 이 수력 발전소의 가동 시기에 대해 2024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재무부, 3달러 이상 해외온라인 쇼핑 관세 부과 30일부터 시행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세당국은 14일 우편·택배업자를 통한 3달러 이상의 해외온라인 쇼핑 상품에 대한 관세를 30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끈끈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쇼핑

상품에 대한 기존 관세 기준은 75달러 이상부터였다. 하지만 지난달 재무장관령 ‘2019년 제119호’를 통해 이를 3달러 이상으로 낮추면서, 거의 모든 상품에 관세가 붙게 된 것이다. 다만 관세율 자체는

상품가의 27.5~37.5%에서 17.5%로 낮아졌다.

관세국은 성명을 통해 “특히 중국산 수입품 유입을 억제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국산품을 보호하겠다. 수입 관세 면제 조치가 개인

용도로만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산 수입 가방, 신발, 의류 중 가방에 15~20%, 신발이 25~30%, 의류에 15~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업자는 화물을 복수로



분할하여 과세를 피하고 있었다. 관세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약 90%는 수입품이다.

# BS 476 Fire Test “CLASS 0”

##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TOILON FOAM**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 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 구멍조끼, 수영보드, 헬멧 및 장갑, 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판’ 깨러 온 현대차

일본·중국차 공장 옆 부지에 착공...내년 12월 소형 SUV 양산  
공장에 ‘이슬람사원’ 짓고, 점심시간 탄력 운영·할랄푸드 제공



▲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 건설 현장 항공사진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 부지에는 현재 지반 보강을 위한 4천400개의 콘크리트 파일을 박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77만6천㎡(23만5천평) 부지에 흩어진 15대의 파일 항타 장비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땅을 울렸다.

자카르타 수도권에 새해 첫날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나고 우기라 매일 같이 비가 내리지만, 현대차 공장 건설은 부지 내 도로부터 미리 닦아 차질이 없는 상태다.

곽병수 현대엔지니어링 현장 소장은 지난 7일 차를 타고 함께 부지를 돌아보며 “자동차 공장은 무겁기 때문에 지반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며 “속도를 내서 내년 초까지 공장 건설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아세안 지역의 완성차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건설하기로 결정,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힘을 보탰다. 현대차 공장 부지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40km 떨어진 브카시 텔타마스 공단에 위치한다.

자카르타에서 차로 1시간 남짓 달려 공장 부지에 도착하기 전 일본 자동차사인 스즈키와 미쓰비시, 중국 자동차사인 울링 공장의 커다란 간판이 보였다.

현대차는 이들 공장에서 불과 5~10분 떨어진 곳에 터를 잡아 정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나아가 동남아시아 자동차 시장의 ‘판’을 깨보겠다는 것이다.

최윤석 현대차 인도네시아

생산법인장은 16일 “텔타마스 공단은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생산 공장의 조기 구축에 유리하다”며 “일본과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모여 있어 부품사가 인접해 있고, 물류비 절감 측면에서도 이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시장에서 그동안 일본 업체들이 장악해 왔지만, 인도네시아 공장을 교두보로 삼아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생산자협회(GAIKINDO)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15만대, 2019년

1~11월 94만대의 차량이 팔렸다.

2019년 1~11월 기준 점유율을 보면 도요타 32%, 다이하쓰 18%, 혼다 13%, 미쓰비시 12%, 스즈키 10%로, 이들 5개 일본 자동차 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도요타의 아반자와 칼야, 이노바 기장은 인도네시아의 국민차로 꼽히며, 현대차는 소량만 수입 판매돼 점유율이라 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을 운영한다. 부품공급을 위한 현대모비스는 진출하지 않고, 수송을 위한 현대글로벌비스는 진출할 전

망이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현지 부품업체와 손잡아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작업자 기술 연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식 기공식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참석을 위해 2~3월께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공장에는 수성도료를 쓰고,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환경 측면도 고려한다.

내년 초 공장이 완성되면 테스트를 거쳐 연말에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양산을 시작으로 소형 다목적차량(MPV)과 세단을 생산한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시장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 중이며, 특히 소형 다목적차는 현대차에선 지금까지 없던 차종이다. 공장이 가동되면 3교대, 3천700여명이 일하게 된다.

현대차는 일본차와 경쟁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망과 애프터서비스(AS)망 구축, 보상판매 방안 등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

최윤석 법인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기차 정책에 맞춰 전기차 모델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아세안 시장은 신남방정책 및 동남아 각국 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전략적 요충지이기에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가 이슬람권에 공장을 짓는 것은 터키에 이어 두 번째다.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이슬람교는 아니지만, 2억7천만 명 인구 가운데 87%가 무슬림이다.

현대차는 이슬람 문화를 고려해 공장 내 이슬람 사원과 기도실을 건설하고,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할랄 푸드 등 현지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한국인 직원들이 현지인들과 잘 협업할 수 있도록 안선근 국립이슬람대학(UIN) 교수를 초청,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차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이슬람문화 특강도 개최했다.

[연합뉴스]

## 예금보험기구, 종교단체 등 고객 예금도 보호 대상으로 검토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기구(LPS)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에 예금을 보호하는 예금보험에 대해서 종교단체나 사회기관 등이 개인으로부터 수급해 은행 계좌에 저축하고 있는 예금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3일자 현지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금 보험의 한도액을 1은행 1고객 당 20억 루피아로 하는 현행 규정에서는, 이러한 단체의 예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금 보호가 사실상 되지 않았다.

LPS 할림 이사장에 따르면, 법인 계좌로 모아지는 개인의 자금으로는 연금보험료나 메카순례비 적립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는 “법인 계좌에 축적된 개인의 자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 LPS 규정의 책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단체가 누구의 자금인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LPS에 따르면 2019년 11월 시점에서 잔액이 20억 루피아를 넘는 고객 예금은 27만 9,252 계좌로 국내 은행 모든 계좌 수의 약 0.09%에 불과하다.

한편 고객 예금 잔고는 총 3,423조 루피아로 총 예금 잔액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자카르타 경제신문]

## 기아, 인니에 SUV ‘셀토스’ 출시...네 자릿수 판매 목표



인도네시아에서 기아자동차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크레타 인도 아르타(PT Kreta Indo Artha, 이하 KIA)는 20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셀토스(Seltos)’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연간 네 자릿수의 판매량을

목표로 한다. KIA가 인도네시아에 출시한 모델은 이번이 5번째다.

셀토스의 배기량은 1.4리터로 7단 듀얼클러치변속기(DCT)를 장착했다. 판매 가격은 2억 9,500만~3억 5,500만 루피아로 설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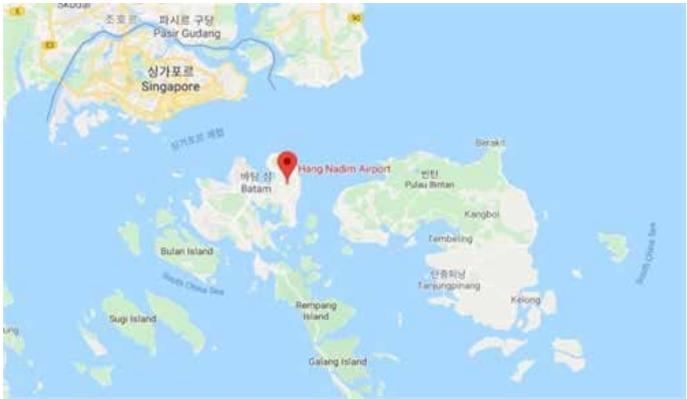
KIA의 앤드류 사장은 “셀토스는 최신 설비와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에 관심이 높은 젊은 세대들이 주요 타겟”이라고 말했다.

KIA가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은 시티카 피칸토(한국명 모닝), 소형 해치백 리오, 다목적 차량(MPV)그랜드 세도나(한국명 카니발), 상용 트럭 Big-UP K2700(한국명 봉고3) 등 4개 차종이다.

한편 KIA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대기업 인도모빌 속세스 인터내셔널(PT Indomobil Sukses Internasional)의 자회사로, 지난해 5월부터 기아자동차의 정식 대리점으로 등록돼 11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 인천공항, 인니 국영기업 손잡고 '바람섬 공항개발' 수주전

## 5천400억원 상당 '바람 향나담공항 투자개발 사업' 목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천400억원 상당 인도네시아 바람섬 공항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 국영기업 두 곳과 손을 잡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3일

자카르타 풀만호텔에서 인도네시아 제1공항공사(AP1), 국영 건설사 위자야 까르야(WIKA)와 '바람 향나담공항 투자개발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바람섬은 빈판섬과 함께 싱가포르에 인접해 있다. 바람섬 향나담공항은 현재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이 각각 1동씩 있고, 8개 항공사에서 23개 노선을 운영 중이다. 2018년 기준으로 여객 562만명이 이용했다.

인도네시아 바람 경제자유구역청은 여객터미널 확장과 개보수, 공항운영과 시설유지보수 관리를 35년 동안 일괄적으로 맡을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민관협력 투자개발사업(PPP) 형식으로 작년 5월 국제경쟁 입찰에 부쳤다.

7개 컨소시엄이 이번 입찰에 참여 중이며, 인천공항공사는 인니 제1공항공사·위자야 까르야와 팀을 이뤘다.

인니 제1공항공사는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영기업으로, 발리공항 등 인도네

시아 14개 공항을 운영한다. 위자야 까르야는 인도네시아 전체 도로의 38%, 발전소의 21%를 시공한 곳이다.

컨소시엄은 3월 31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5월 4일이 최종 낙찰자 발표, 6월 30일에 실시협약이 체결된다.

구분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앞으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중동, 아시아, 동유럽 등 전 세계로 해외사업을 확장하고 국내기업과 동반 진출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조코 위도도 대통령, 라부안바조 관광개발 촉구...2023년 G20 개최 목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3년 20개국 정상회의(G20)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를 동부 누사틉가라주 플로레스 라부안 바조에서 개최할 목표라고 밝혔다.

라부안 바조는 정부가 정한 '우선개발 5대 관광지' 중 한 곳이다. 공항과 항만 등의 인프라와 성급 호텔 등 관련 시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현지 언론 안파라뉴스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코 위도

도 대통령은 19~21일 동부 누사틉가라주 플로레스 라부안 바조를 시찰하고 "공항 확장 및 쓰레기 처리 시설, 상수도망 등의 준비를 연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관광객 유치 활동을 실시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라부안 바조의 항만 및 해안 부근 관광 지역 등 5곳을 '슈퍼 프리미엄' 지역으로 지정하고 본격 개발될 예정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깨끗하고 편안하며, 안전한

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통부는 코모도 공항 재정부 공사에 1조 2,000억 루피아, 공공사업주택부는 기타 인프라 정비 등에 9,700억 루피아를 투입한다.

이 밖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자연환경 유지 및 보전을 위하여 목표를 매년 500만 그루 심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 20일 해안 부근에 4성급 호텔 인아야 베이 코모

도(Hotel Inaya Bay Komodo)가 개업했다. 이 호텔의 객



실은 147실이다. MICE(회의, 시찰, 국제 회의, 전시회·박람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홀의 수용 인원은 1,000명이다.

# 하나 선교 교회

## 생명의 말씀

인생을 살다보면 눈물짓는 밤을 만납니다. 곁에서 위로해 줄 이 아무도 없는 고통의 깊은 밤을 혼자서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어두운 밤을 통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고 내일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통해서 내게 인생의 깊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향기를 발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일예배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수요일예배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담임목사 : 김덕수

Karawaci Office Park H-26, Tangerang Indonesia  
전화 : 0812 8249 7216, E-mail : kds3767@hanmail.com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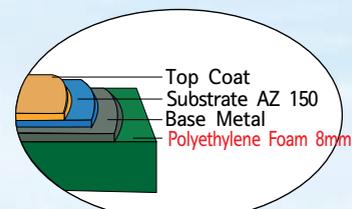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x 35mm)
2. 25mm Trimdek (1040mm x 25mm)
3. 35mm Spandek (920mm x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x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x 55mm)
6. Genteng Metal (기 외) (82mm x 35mm)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 남과 다른 길... 도전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해가 밝았다

020년 새해 사회 각지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는 '밀레니얼 세대' 의 이야기를 들었다



①에버랜드에서 고객에게 춤과 랩으로 놀이기구 등을 재밌게 안내하는 동영상 유튜버에 소개되면서 유명해진 윤주현(25)씨는 현재 서울랜드에서 근무하며 유튜버 '윤쭈쭈' 를 운영하고 있다.  
②서울대 3학년 때 스타트업을 창업한 강미나(26)씨는 유튜버 영상과 시청자 빅데이터를 시로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는 '빅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수없이 경험한 실패가 밑거름이 됐다고 했다.

③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며 미국 파슨스 스쿨을 졸업한 류송(30)씨는 패션 브랜드 '송류(Song Ryoo)' 를 창업했다. 그는 유럽 시장 정복을 꿈꾸고 있다.  
④4년 차 스타트업 강현구(29)씨는 최근 영화 배두산에서 배우 이병헌의 대역으로 활약했다. 관객에게 영원히 기억될 액션을 만드는 무술감독이 꿈이다.  
⑤이슬아(27)씨는 '일간 이슬아' 로 인기를 얻은 작가다. 1인 출판사를 운영

하는 이씨는 건강하고 꾸준히 작가 생활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⑥ '하비인더박스' 를 창업한 조유진(30) 씨는 취미 생활을 박스에 담아 배달하는 아이টে이머 창업 3년 만에 월 매출 2억원의 회사로 성장시켰다. 도전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⑦해병대 복무 당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부상해 국가유공자가 된 조수원(28)씨는 '팔뚝치킨' 숭인숍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 배달 전문 노하우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⑧열아홉에 북한 압록강을 건너 탈북해 영화배우·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강나라(23)씨는 한국은 꿈꾸고 노력하면 성공할 기회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⑨분단국가를 표현한 패션 화보집으로 프랑스 '디올 포토그래피 영 토틀런트 어워드' 를 받은 박다빈(24)씨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광고 사진가가 꿈이다.

## 창원대, 인도네시아 빠순단대학교 초청 스마트공장 글로벌 체험



▲ 사진=창원대 제공

창원대학교(총장 이호영)는 16일 자매결연 대학인 인도네시아 빠순단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3명 및 학생 22명을 초청해 스마트공장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학생 및 교수 교류 프로그램 협의, 스마트 공장 체험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창원의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 기업을 둘러보고 선진 기술을 배우는 기회

를 제공했다. 창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가 주관하고, LINC+사업단, 국제교류원 및 창원산단 제조업혁신 인프라 조성 사업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4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인도네시아 빠순단대학교 방문단은 창원대학교 공과대학 및 메카트로닉스대학 학장을 만나 학생 및 교수 교류 프로

그램에 대해 협의했으며, 초청 교수 3명은 각각 인도네시아 산업 현황과 발전 전망에 관련한 특강을 펼쳤다. 또한 학생들은 3D프린팅을 활용한 키 체인 제작과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체험 및 견학의 시간도 가졌다.

16일에는 스마트공장 구축 경남도내 우수 기업인 (주)대호아이앤티, (주)대건테크, (주)위딘 등을 방문해 제품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스마트 공장 구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 방문단을 초청하고 인솔의 책임을 맡은 창원대학교 황민대 교수(정보통신공학과)는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적용한 한국의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기술을 인도네시아 교수 및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창원대학교와 창원시의 관련 기술 위상을 정립하고,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라고 설명했다.

[베리타스알파]

## 원격 의료 앱, 인도네시아에서 이용 확대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원격 의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의사가 부족한 것 등이 배경에 있다고 20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의료 상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할로독(Halodoc)' 은 지난 2016년에 설립됐다. 조나단 할로독 최고

경영자(CEO)에 따르면 이 앱은 2만 명 이상의 의사가 등록, 1개월 당 평균 900만 명이상이 이용한다. 뉴스 매체 '데일리 소셜' 이 수도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의료 플랫폼 중 할로독의 이용 경험자는 45.3%로 나타났다. '알로독프르(Alodokter)' 이용 경험자는 32.3%, '클리독프르(Klikdokter)' 는 18.8%였다.

반면 의료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 협회(YLKI) 관계자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의사회(IDI)의 제임스 회장은 "대면 진찰이나 검사가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며 원격 의료 앱에 등록하는 의사의 의사 면허를 게시해 달라" 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 인도네시아 경찰대학원에 '태권도 전용 체육관' 개소

태권도 필수과목으로 채택...주 2회 1년 반 동안 배워야



▲ 인도네시아 경찰대학원에 '태권도 전용 체육관' 개소[인도네시아 경찰청 태권도협회 제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경찰대학원에 230㎡(70평) 규모의 태권도 전용 체육관이 22

일 문을 열었다. 이 체육관에서는 다음 달부터 경찰대학원생들이 두 시간씩

주 2회 태권도 수업을 받는다. 윤유중 인도네시아 경찰청 태권도협회 총감독은 "올해부터 태권도가 경찰대학원에서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됐다" 며 "대학원생들은 기수별로 1년 반 동안 태권도 교육을 받고 단증을 따야 한다" 고 말했다. 경찰대학원생은 기수별로 140여명이며, 이들을 3개 반으로 나눠 한국인 사범 5명과 현지인 사범 10명이 가르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스마라에 있는 경찰대학교에서 태권도가 필수 과목으로 교육되며, 이와 별개로 여경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 수업도 조율 중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경찰대학교는 4년제 과정으로 경찰 간부를 육성하는 곳이고, 대학원은 2년제 과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아리스 경찰대학원장과 예끼 경찰청 교육국장,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스타트업 넥스트마인드는 이번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전시회 'CES 2020'에서 사람의 생각을 읽는 웨어러블 헤드셋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넥스트마인드의 헤드셋을 착용하면 생각만으로 눈앞에 놓인 조명의 색상을 바꿀 수 있고, TV 채널을 변경할 수 있다.

수 있는 기술·제품이 소개돼 새로운 '인터페이스'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다. **생각만으로 기기 조작... 두뇌 집중도 파악 가능** CNBC는 올해 전세계 BCI 산업 규모가 15억달러(1조 7300억원)이며, 교육, 게임, 스마트홈 제어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넥스트마인드의 기술은 아직 일반 소

에 개발 키트(도구)가 판매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브레인코는 CES 2020에서 포커스원이라는 헤드밴드를 소개했다.



## 머릿속 생각 읽는다 ... 뇌-컴퓨터 연결 시장 열렸다

**브레인-컴퓨터 인터페이스 산업 올해 1조7300억 규모  
프랑스·미국 스타트업, CES 2020서 제품·기술 소개**

리모컨 없이도 자유자재로 기기의 동작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넥스트마인드는 두뇌의 센서나 뇌에 이식된 기기를 통해 뇌 신호를 측정하고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브레인-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BCI)'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넥스트마인드의 시드 쿼터 최고경영자(CEO)는 "당신의 생각은 뇌 속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분석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13일(현지시각) 경제전문매체 CNBC는 CES 2020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혁신은 자율주행차나 플라잉카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읽는 웨어러블 기기라고 했다.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될



▲ 넥스트마인드의 웨어러블 헤드셋은 사람의 뇌 신호를 읽어 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넥스트마인드 홈페이지

비자가 구매할 수는 없다. 이 제품은 사람의 두뇌 피질 활동을 센서로 측정한다. 두뇌가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헤드밴드에 달린 조명 색상이 빨간색으로 변한다. 휴식을 취하거나 명상 상태에서는 조명 색상이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브레인코의 헤드밴드는 학교용은 350달러(40만4000원), 일반 소비자용은 500달러(57만7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어린이의 집중력을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맥스 뉴론 브레인코 사장은 "포커스원은 뇌가 생산하는 미묘한 전기적 신호를 감지한다"면서 "전기적 신호가 두뇌에 전달되면 센서가 이를 포착하고 (명령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브레인 컴퓨팅 연구... 지난해 관련 기업 인수**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부터 브레인 컴퓨팅 기술을 연

구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와 사람의 생각을 이용해 타이핑을 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연구에서 진전을 보였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9월에 뇌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술을 가진 미국 스타트업 CTRS-랩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CTRS-랩스는 아마존의 알렉사 펀드 등으로부터 6700만달러(774억원)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이끄는 뉴라링크는 올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라링크는 사람의 뇌에 스마트폰과 연결 가능한 프로세서를 내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CNBC는 "머스크 창업자는 사람들이 텔레파시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도 통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빠뿌아에도 차례상과 떡국...한국인 근로자 58명 근무



▲빠뿌아에도 차례상과 떡국...한국인 58명 현지 근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제공]

김창범 대사, 무림·포스코·코린도 등 한국업체 방문 뉴기니섬 인도네시아령 빠뿌아에서도 25일 설을 맞아 한국인 근로자들이 모여 차례상을 차리고, 떡국을 나눠 먹었다. 빠뿌아에는 무림과 포스코, 코린도 등 3개 한국 기업의 사업장이 있고, 한국인 총 58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 기업은 산업조립, 판농장, 원목사업을 하며, 빠뿌아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면적

은 50만ha로, 서울 면적(6만ha)의 8배가 넘는다. 3개 사업장에 고용된 현지인은 1만5천명 수준이다.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는 설을 맞아 지난 22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빠뿌아를 방문했다. 빠뿌아는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자카르타는 한국보다 2시간이 느리지만, 빠뿌아는 한국과 시간대가 같다. 김 대사는 빠뿌아 머라우게



▲ 빠뿌아에도 차례상과 떡국...한국인 58명 현지 근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제공]

김 대사는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근무하면서 이번에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왔다"며 "빠뿌아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빠뿌아 주민들을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대사와 동행한 임영석 임무관(산림청 주재관)은 "빠뿌아는 워낙 오지라 인도네시아인들도 근무를 꺼린다"며 "빠뿌아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 산림 현장 최전선에서 우리나라의 국



▲ 빠뿌아의 한국 사업장 전경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제공]



▲ 빠뿌아 찾아간 김창범 대사(오른쪽 두번째)와 임영석 임무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제공]

의 증진과 양국 간 우호 협력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강조했다. 빠뿌아 포스코 사업장의 한승우씨는 "명절이면 고국이 그리운 법인데, 이번 명절에는 대사님을 포함해 다 같이 모여 떡국도 먹고 차례도 지내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씨의 아내 윤보라씨는 빠뿌아에 따라와 생활하다 수질환경관리 경력과 폐기물처리기사 취득으로 2018년 말 포스코 사업장에 채용돼 부부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 빠뿌아에는 이들 3개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외 선교사와 사업가 등 13가정, 41명의 한국 교민이 살고 있다.

한씨의 아내 윤보라씨는 빠뿌아에 따라와 생활하다 수질환경관리 경력과 폐기물처리기사 취득으로 2018년 말 포스코 사업장에 채용돼 부부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 빠뿌아에는 이들 3개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외 선교사와 사업가 등 13가정, 41명의 한국 교민이 살고 있다.

[연합뉴스]



▲ 포스코 빠뿌아 사업장의 한승우-윤보라씨 부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제공]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 ‘현대차 전기차’ 20대 운행 시작

그랩 인도네시아 “연말까지 전기차 500대 목표...전기오토바이도”



▲ 자카르타 공항에 ‘현대차 전기차’ 20대 운행 시작[트위터 @ridwanhr]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20대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 27일 그랩(Grab) 호출 차량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현대차와 동남아 최대 차량 공유업체인 그랩은 자카르타에서 전기차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손잡았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으로서 2030년에 ‘전기차 산업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다양한 사업을 시도 중이다.

인도네시아 최대 택시회사 블루버드(Blue Bird)가 작년 가을부터 수카르노하타 공항에 전기 택시 수십 대를 배치해 시내를 오가며 시범 운행 중이다.

블루버드는 테슬라와 중국 비야디(BYD)의 전기차를 도입했다.

그랩도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수카르노하타 공항에 배치해 승객을 시내로 실어 나른다.

야 수마디 교통부 장관,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부 장관, 리드즈키 크라마디브라타 그랩 인도네시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리드즈키 대표는 “그랩 전기차 출범은 인도네시아의 미래 교통수단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와 현대차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연말까지 그랩(인도네시아)의 전기차를 500대까지 늘리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랩은 그릿(Gesits), 아스트라 혼다모터와 손잡고 오토바이 부문에서도 전기 오토바이로 시범사업을 벌인다.

[연합뉴스]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 271km에 달하고 급속충전기로 충전하면 1시간 이내에 80% 충전이 가능하다.

이날 터미널3에서 열린 그랩 전기차 출범식에는 부디 카르



▲ 수카르노하타 공항에 설치된 그랩 전기차 부스[그랩인도네시아]

## 신수도에 400억 달러 투자?...소프트뱅크 “구체적 금액 아냐”

루훗 빈사르 판자이판(Luhut Binsar Panjaitan)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인도네시아가 계획 중인 동부 깔리만판주로의 수도 이전에 대해 소프트뱅크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으로 부터 300억~400억 달러 정도 투자한다고 제안을 받았다

고 밝혔다. 이에 소프트뱅크는 “구체적 인 금액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부정하는 코멘트를 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바섬에 인구와 경제력 편중 현상이 심각하고, 특히 자카르타가 수해 등 재난에 취약하다

며 수도를 보르네오섬 동부 깔리만판으로 이전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이전 비용은 최대 약 466조 루피아에 달할 전망으로 정부는 민간 투자를 활용하고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손정의 회장은 지난 10일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 또바 호수서 6개사가 호텔 개발... 2조 루피아 투자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주에 있는 세계 최대의 칼데라 호수 또바 호수(Toba Lake) 주변에서 올해 6개사가 호텔을 개발할 계획이다.

16일자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투자 총액은 약 2조 루피아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에 발리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 총회에서 또바 호수 주변 개발 사업 참여를 약속한 7개사 중 6개사가 투자한다. 남은 1개사도 내년 이후에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바 호수 관광청(BPODT) 관계자에 따르면, 6개사는 BPODT가 운영하는 ‘

또바 칼데라 리조트 에어리어(Toba Caldera Resort Area(386.72헥타르)’에 호텔을 건설한다. 이 지역은 관광지로서 작년에 개소했다. 중소 영세업체의 상업지구로도 기능한다.

호텔은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객실이 합계 3,000개 늘어날 전망이다. 4,50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한편 또바 호수 주변의 도로와 항만 등 기초 인프라 개발에 대해서는 정부가 올해 4조 400억 루피아의 출연을 계획하고 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해 새로 건설하는 수도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yu@hotmail.com

## 자카르타 오토바이 전자 교통단속(E-TLE) 2월부터 시범 운영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22일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한 전자교통위반단속(E-TLE) 시험 운용을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 콤포스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교통국 파흐리 국장은 “시험 기간은 3일에서 최대 1주일로 잡았다. 문제가 없으면 즉시 단속을 시작한다” 라고 언급했다.

자카르타 중심부의 수디르만 거리-

팝린 거리와 자카르타의 공영 버스 트랜스 자카르타 전용 차선(남부 라구난-두꾸아파스)에 자동차용 E-TLE와 같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 당국은 차량 넘버 ‘B (자카르타특별주 등록 번호)’ 이륜차를 대상으로 헬멧 미착용, 표지판과 신호 무시, 역주행, 버스 전용 차선 무단진입 등을 단속한다. 파흐리 국장은 “수디르만 거리-팝린 거리에는 이미 감시 카메라 57개를 설치했다” 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는 2018년 11월부터 자동차를 대상으로 E-TLE 단속을 시작했다. E-TLE 단속 1년 후 2019년 11월까지 5만 4,074건의 교통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또한 위반 건수도 27% 감소했다.

## 리보 짜카랑, 메이까르따 개발 사업 지속 확약

인도네시아 복합 기업 리보 그룹(Lippo Group) 산하의 부동산 개발 기업 리보 짜카랑(PT Lippo Cikarang)은 서부 자바 브카시 군(郡)에서 추진 중인 대형 도시 개발 ‘메이까르따(Meikarta)’ 사업을 완료까지 지속할 것을 확약하면서, 매스미디어 등을 통한 사업 포기 소문에 대해 완전 부정했다.

지난 17일자 현지 매체 인베스터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사업을 둘러싼 비리 사건에서 리보 짜카랑의 바르톨로메우스 토토(Bartholomeus Toto, 이하 BTO) 전 사장이 뇌물 혐의로 체포되자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답한 것이다.

메이까르따 사업 관련 마케팅 관계자는

“해당 사건으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고 한 뒤 “사업은 잘 진척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현재 제1지구 28채 중 22채가 이미 상량(上樑), 나머지 6채도 곧 상량에 들어간다.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전체 물건의 인도를 목표로 한다. 고객이 원할 경우 직접 공사의 진척을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점유율 1위!

#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성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 김창범 대사, K-move 연수생과 간담회 개최



▲ (사진=주인니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김창범 대사는 지난 20(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연수중인 K-move 연수생들(GYBM, 2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대사는 연수생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특별한 전략 동반자 관계, 인도네시아의 성장 가능성, 현지 문화,

주요 한인기업들의 인니 진출 현황, 대사관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연수생들이 GYBM 연수 과정을 잘 마무리하여 향후 현지에 잘 정착하게 되길 격려했다.

GYBM은 전직 대우인들이 2009년 결성한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2011년 베트남에서 시작한 청년 해외 취업 프로그램이다. 중급 이상의 어학능력을 갖춰 현지 기업에서 경험과 실력을 쌓아 창업까지 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김우중 사관학교'로도 불린다.

##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인도네시아서 학교건축·교육 봉사



▲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원과 현지 학생들(포스코 제공)

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온드'가 지난 11일부터 열흘동안 인도네시아 칠레곤에서 학교를 짓고 현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비온드는 포스코가 글로벌 모범 인재 양성을 위해 2007년 창단한 대학생 봉사단이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간 봉사단은 지난해 5월 선발된 '포스코 비온드' 13기 100명과 포스코청암재단의 인도네시아 장학생 '인도네시아 비온드' 20명 등 1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붕괴 우려가 있는 도서관을 재건축하고 개수대, 분리수거장, 비탈길 계단을 설치하는 학교 환경개선 활동을 벌였다. 2018년 시작한 포스코 스틸빌리지(Steel Village) 프로젝트에 하나로 신축한 학교의 마감 공정에도 참여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이 환경문제, 에너지 재활용 등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글로벌 시민교육'을 직접 기획하고 교육했다.

[연합뉴스]

## 국외 사건사고시 조치비용 부담은?... '해당 국민' 의견 지배적

외교부 첫 국민참여사업...영사조력법 시행 앞두고 국민참여단 의견 청취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민토론회[외교부 제공]

외국에서 사건·사고를 당했을 경우 관련 조치 비용은 국가가 세금으로 우선 부담하고 이후 해당 국민이 국가에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지난해 11~12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범위'를 주제로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러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23일 전했다.

외교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자 처음으로 국민참여사업을 실시했다.

국민참여단은 자료집 학습과 전문가 설명·질의응답, 분임토론 등을 거치면서 사건·사고 시 영사조력 범위, 재외국민보호 비용 부담 주체 등을 토론했고 3차례 관련 설문조사에 응했다.

국민참여단 내에서는 영사서비스 확대를 위해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담당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국민참여단 의견은 내년 1월 16일 시행되는 영사조력법 하위법령 입법 및 관련 지침 정비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올해 6월 공개포럼 등을 통해 국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대사관 안전공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주의보

1. 1.23(목) 오전 중국정부 발표에 의하면 현재까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480명으로 한국에도 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인도네시아는 아직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2. 주재국 정부도 수카르노-하타공항과 할림공항 국제선 도착(특히, 중국 우한, 북경, 홍콩발) 시 체온스캐너를 통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항 직원 등에게도 최소한 마스크 등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권고 사항
  - 중국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 후 14일 이내 열, 기침, 호흡 곤란 증상시 병원 방문
  - 코로나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병이므로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기침시 팔소매로 코와 입을 막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거나

○ 대사관 영사과(근무시간 중) : +62-21-2967-2580

○ 대사관 당직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운영) : +62-811-852-446

○ 외교부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톱슨 목금형(톱슨발형)

### 철판 커팅 레이저 신규 가동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빼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진구 신천대로 65번길 38호 (범천1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korea.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21st National Assembly Overseas Voting

세계 속의 한국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

Koreans around the world: You are a South Korean voter.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you must apply or register by 15th February 2020.

**2020.2.15.까지**



### 신고·신청 방법

Method for Application or Registration

- 인터넷 이용 (ova.nec.go.kr)  
On the internet (ova.nec.go.kr)
- 공관방문 / 순회접수  
Visiting the official government office / mobile booths
-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Through post / email

투표기간 | 2020. 4. 1. ~ 4. 6. (기간 중 6일 이내)  
Voting Period | 2020. 4. 1. - 4. 6. (Duration of 6 days)

👉 신고·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Apply and register quickly and easily on the internet!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참고  
Refer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verseas Voting (ok.nec.go.kr) 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websites for details and further information

!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별도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2016년 국선, 2017년 대선) 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됩니다.

Those who are on the overseas voting list for the previous election may participate in overseas voting without additional registration. However, individuals who have not participated in overseas voting two consecutive times or more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2017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deleted from the permanent list.

# 정부, 신종코로나 대응 총력전...입국자 전수조사·전세기 투입

## 정 총리 관계장관회의 주재...” 中우한에 30~31일 전세기 파견 방안 협의” ‘유입 차단’ 빈틈없는 대응 주문...’ 개학 연기’ 않고 정상적 학교 운영키로

### '우한 교민 철수'

#### 정부, 30~31일 전세기 투입

전세기 투입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b>1</b> 우한 체류 한국민, 전세기 탑승 신청 (27일 밤 현지시간 기준 총 693명 신청)	<b>2</b>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 최종 탑승자 결정 (의심증상자, 중국 국적 가족은 탑승 불가)	<b>3</b> 우한 내 4곳을 집결지로 선정
<b>4</b> 집결지부터 텐허 국제공항까지 셔틀버스 운영	<b>5</b> 한국민,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입국	<b>6</b> 정부 지정 장소에 14일동안 격리된 후 경과 관찰 조치

텐허국제공항  
우한수산시점  
우한시

베이징  
중국  
후베이성  
우한  
서해  
인천  
한국

장예진, 장성구 기자 / 20200128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중국 당국이 봉쇄한 우한에 체류 중인 국민 중 귀국 희망자를 위해 오는 30일과 31일 현지에서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하고 중국 측과 협의 중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우한 폐렴 대응상황 및 조치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우한에 체류하는 국민들의 귀국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14일 이내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가벼운 증상만 있는 경우도 함께 검사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면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이송해 격리·검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잠복기(14일)를 감안해 지난 14~23일 우한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정부는 이날부터 대상자 3천23명을 추려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또, 지역사회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4시간 안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빠른 검사가 가능

하도록 검사방법을 제작·보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한 현지에 발이 묶인 교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30일과 31일 우한에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두고 중국 당국과 협의중이다. 정부가 파악한 귀국 희망 수요는 700여명이다. 정부는 금주 중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전세기를 보내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지만 중국 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전세기 투입 날짜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우한 교민들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잠복기 동안 국내 임시생활 시설에서 머무르는 동안 모든 과정에 대해 빈틈없이 대응하고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했다. 정부는 마스크나 방호복 등 의료구호 물품을 전세기편으로 중국에 전달하는 등 중국과의 협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한 폐렴과 관련해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감안해 각급 학교의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현재 지역사회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범정부적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을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한에 체류하는 국민 중 귀국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1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전세기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중국 정부는 우한시와 그 주변 지역을 사실상 봉쇄했고 고립된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면서 "재외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분들이 현지에서 이송되고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감염증이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확산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선제적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접촉자 밀착 관리와 의료기관 지원, 국민에 대한 설명, 대내외 협력 등을 더 꼼꼼히 챙겨주기를 당부드린

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우리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겪으면서 감염병을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한 제도를 구축했다"며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선별 진료 절차를 마련했고,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격리 병상과 음압 병실 대폭 확대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실수나 부주의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스템이 무너지면 국민 신뢰도 무너지니, 지자체와 의료기관,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하고 "관계 부처는 사회적 혼란과 불필요 공포심 키우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PRINTING COMPANY

###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 명함 : 컴포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제작 문의**  
021-3002-9087  
0858-9060-0962  
pt.kwanggaeto@gmail.com  
khong3000@gmail.com

www.f1-logix.com

##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